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본 마을 단위 문화유산 기록화 연구

-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 시범 구축을 중심으로

Documenting Communities and Archiving Heritages

- A Case Study of Incheon Chinatown Community Archive

엄수진* · 박소현**

Eom, Sujin · Park, So-Hyun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2년 시작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마을의 문화역사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지만, 사업 시행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주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는 아직까지 마을 단위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발굴하고 보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도시건축적 차원에서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마을의 문화유산이 적절히 수집, 기록되어 이를 실행 단계에서 활용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까닭에 마을의 문화유산은 대다수의 마을 주민들에 의해 공유되었다기보다는 사업을 위해 급조된 성격을 띠어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에 미비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게 된 것이다.

한편 마을 단위 문화유산 기록화 논의는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점점 마을의 원형을 잃어가는 가운데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뉴타운 혹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리는 인간 생활과 자연의 흔적에 주목하는 최근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이를테면 신도시 개발 이전 사업지구의 다양한 흔적을 수집하고 기록, 보존하기 위해 광고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발간한 '지감보감'이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종로구 청진정비구역 일대, 소위 피맛길의 재개발 이전 모습을 공간 아카이브로 시범적으로 구축한 사례, 재개발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인 마포구 아현동의 민속학보고서는 마을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마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 마포구 성미산마을의 사례는 재개발로 사라질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만큼이나 현재 남아 있는 마을의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 또한 오늘날의 마을만들기에서 간과되어서 안 될 부분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마을의 공간적 특성과 관련한 문화유산을 기록화하는 작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 성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과 제도적 지원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문화역사마을가꾸기와 같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다 사회적이고 체계적인 틀 안에서 이해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그 성패 여부가 종종 개별 마을의 역량으로 쉽게 환원되는 식의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도심재개발의 역사성을 고려한 계획에서조차 개발 이전의 공간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적절한 설계 혹은 계획의 수립에 난항을 겪어 왔다(유광흥 외, 2008).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마을 단위 문화유산의 기록으로서 마을 아카이브가 도시공간에서 갖는 가능성과 의의를 진단하고 한국의 도시 공간에서 이러한 마을 아카이브가 실제로 구축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마을 아카이브가 도시적 맥락에서 갖는 이론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연구되거나 기획되었던 아카이브 선행 사례를 살펴 마을 아카이브의 구축과 관련한 계획 요소를 도출하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여 인천 중구 선린동 일대, 소위 인천 차이나타운의 마을 아카이브를 시범적으로 구축해봄으로써 한국에서 마을 아카이브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인천 차이나타운은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여러 재개발 사업으로 마을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이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지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인천 차이나타운의 화교사회가 오랫동안 한국의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어 그 공간이 갖는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마을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은 더욱 마을 아카이브 대상지로서의 의미가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마을 단위 문화유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마을 아카이브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문화유산을 단일 오브제로서의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마을 단위의 정주형 문화유산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05년 비엔나 보고서에서 언급한 '역사도시경관'이라는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2009년 하노이 선언은 이 개념을 확대시킨 것으로 역사도시경관이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양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바로 이들의 감각적인 지각, 지역적 지식 등을 포함하는 상징적 가치의 결과물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마을의 문화유산을 정의하는 데 있어 '역사적 가치'가 무엇이고 '경관'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의 틀이 확대되어야 하며 따라서 물리적 측면을 넘어선 다양한 관점과 범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Hayden(1988)의 연구는 도시의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의 의미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역사, 특히 에스닉 커뮤니티의 공간적 문화유산에 주목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여러 하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는 커뮤니티 유산의 보존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국 내 여러 법적 체계 및 제도를 분석하며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주류 사회의 역사 뿐 아니라 노동사, 에스닉 커뮤니티의 역사 그리고 여성사와 같이 그간 역사적 차원에서 크게 조망되지 않았던 분야 또한 지지해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렇듯 그는 도시건축공간의 역사와 관련하여 소외되어 왔던 노동, 여성, 에스닉 커뮤니티 모두를 도시 전체의 유산으로 확대시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도시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를 통해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는 강동진(2002), 김기호(2004), 박소현(2005), 정석(2009) 등을 중심으로 역사문화환경 혹은 역사지구가 개념적으로 확대되어 문화유산이 그 주위의 환경과 맥락과 함께 전체의 유산으로 인식되고 보존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박소현(2005)은 더 나아가 '기존의 점적-면적 논의'가 '물리적 보존'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역사적 도시건축의 논의는 오래된 동네의 일상적으로 표출되어 온 역사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유산 논의에서 그간 활발히 시도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혹은 '일상성'이 갖는 미시적 역사성을 도시건축적 차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임은영 외(2005), 박소현 외(2006)의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로 오래된 동네의 역사적 도시조직의 형태를 밝히고 이에 대한 주거단지 혹은 마을의 계획적 요소를 도출해내고 있다.

2.2. 마을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선행 연구

마을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는 크게 마을의 문화유산/지역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기록화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아카이브는 최근 물질적 자료 이상으로 사람들의 역사, 특히 유명인들의 기여나 성취가 아니라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그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Horton, 2001).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Cox(1996)

는 지역성을 커뮤니티와 대체 가능한 개념으로 간주하며 이를 기록화(documenting)하는 방법에는 '전통적 접근'과 '실용적 접근'이 있다고 보았다. 잠재적 가치보다 주로 '위험에 처해 있는' 민간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기존의 전통적 접근은 지역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아키비스트의 비중이 지배적이다. Cox는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그 과거와 현재를 통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을 포착하는 실용적 접근방식이야말로 지역성을 기록화하는 데 있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최재희(2008)의 연구는 영국 MLA, 즉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협의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카이브가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MLA와 같은 국가 차원의 문화협력기구가 아카이브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영국에서 아카이브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목표로 한 노동당 정부의 사회정책과 연관되어 그 중요성이 대두된 사실에 포착하여, 아카이브 구축의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 발전과 시민권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한다. 2004년 영국 내 아카이브의 수는 약 2,000여개로 이러한 아카이브의 육성에는 아카이브 종합발전계획의 주체인 MLA의 역할이 컸다. 그 활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기적인 아카이브 조사를 통해 아카이브 관련 통계가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이러한 통계 자료는 아카이브 관련 정책뿐 아니라 연구의 질과 폭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마을 아카이브 혹은 문화유산의 기록화 연구가 기록학과 지방학, 민속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록학 분야에서는 민중의 생활사나 구술사 연구를 통해 대안적인 형태의 역사 기록을 모색하는 가운데, 생활사 아카이브의 형태로 그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정선영, 2008; 이영남, 2008; 곽건홍, 2009). 지방학에서는 주로 생활사 아카이브가 생활사의 학제적 연구를 위한 기초적 토대로서 갖는 중요성(김주관, 2005; 함한희, 2008)에 주목하고 있으며, 민속학은 마을민속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마을만들기에서 민속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상현, 2008). 한편 건축도시 분야에서도 최근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논의가 일부 전개되고 있는데, 건축아카이브 연구(전봉희, 2004),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연구(유광흠 외, 2008), 건축가 아카이브 연구(조준배, 2009)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아카이브 연구는 주로 생활사나 건축물/건축가 중심으로 연구가 한정되어 있어 마을의 역사적 맥락과 관련한 아카이브 연구는 아직까지 건축도시의 분야에서 활발히 시도되어 오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마을 아카이브의 도시공간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마을 아카이브가 도시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마을만들기와 같은 계획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3. 마을 아카이브의 계획 요소

3.1. 마을 아카이브의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마을 아카이브'는 '가로, 주택, 학교, 놀이터와 같은 일상적인 건축 환경과 관련된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유산 기록'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는 생활사 아카이브로서의 의미가 강한 '커뮤니티 아카이브'와는 달리 보다 공간 기록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마을 아카이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마을 아카이브의 자료가 되는 역사적 문화유산은 크게 고지도를 비롯한 각종 지도, 마을의 문화경관을 담고 있는 그림엽서, 마을의 지형, 지물, 건물 등이 찍힌 사진과 같은 공간 기록물¹⁾과 이러한 기록물들에 묘사된 공간의 특징과 역사를 포함하는 생애사, 인터뷰, 동영상, 문헌기록, 연구 자료 등 비공간 기록물로 나눌 수 있다. 마을 아카이브는 무엇보다도 공간 기록물과 비공간 기록물의 상호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1) 이러한 공간 기록물은 일반적으로 '공간적 참조점을 가지는 기록'으로 정의되며, 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 분야에서 발달되어 왔다(유광흠 외, 2008)

3.2. 마을 아카이브의 계획 개념

마을 아카이브와 유사한 기존 사례 연구를 통해 마을 아카이브의 계획 개념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표1> 국내외 마을 아카이브 프로젝트 및 연구 사례

구분	명칭	대상	내용	자료	형태
생활사	20세기민중생활사아카이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한국 개항장과 그 배후도시, 근대교통수단의 요충지	한국 근현대 민중의 생활문화 기록과 재구성	사진, 문서, 민중생활의 물적 증거, 구술생애사, 기록 영화 및 극영화, 문학작품 (12,000건의 멀티미디어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생활사	Moving Here	영국 내 4개 에스닉그룹 (동유럽계 유대인, 아일랜드, 카리브, 남아시아 출신)	지난 200년 동안 영국으로 이주한 소수 집단의 영국 이민사에 대한 기록	총 20만 여점의 디지털 이미지 문서, 시청각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생활사	Community Archives Wales	영국 웨일스 내 커뮤니티들	웨일스 내 여러 커뮤니티 역사의 아카이브 구축과 그 내용의 공유	사진, 오브제, 책, 그림엽서, 메모리얼	디지털 아카이브
생활사	Connecting Histories (Birmingham City Archives)	영국 버밍엄 내 인종적/종교적/문화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들	버밍엄의 다양한 커뮤니티 역사에 대한 기록	사진, 글	디지털 아카이브
마을	타다미 인터넷 예코뮤지엄 (가나가와대학21세기COE프로 그램)	일본 후쿠시마현 미나미아이즈군 타다미마을	타다미 마을의 산업, 경관, 공간구조 등 통합적인 지역정보 제공	문헌자료, 민구, 사진, 영상자료, 자연자료(지질, 동식물)	디지털 아카이브, 문화재보고서
마을	아현동 도시민속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개발 지구 일대	아현동 주민들의 생활사, 이주사	사진, 글	보고서
마을	지감보감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광고명품신도시 사업지구	광고명품신도시 개발조성 전의 역사, 문화, 민속 생태 모습 기록	생활사 유물 550여점, 사진 6천여점, 동영상, 소리음원	혼합형 아카이브
마을	Rodbourne Trail (Rodbourne Community Heritage Group)	영국 철도 건설 사업에 고용된 당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지어진 주택단지	지역 주민들의 기억과 관계된 주요 건물들의 지도화	사진, 지도, 글	디지털 아카이브
도시	피맛길 아카이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울 종로구 청진도시환경재정비구역	피맛길 상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된 피맛길의 역사와 현재 모습 기록	사진, 문서, 동영상, 3D 건물자료, 건축대장, 문학작품, 블로그 등	혼합형 아카이브
도시	조계와 아시아 (가나가와대학21세기COE프로 그램)	중국 상해의 1930년대 일본 조계지	가로, 공장, 부설일본인사택, 중국인노동자주택 등 일본인이 살고 있던 당시 실태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흔적	사진, 도면, 문자자료, 인터뷰	디지털 아카이브

1) 역사성

우선 마을 아카이브는 마을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개인 및 공동체의 역사적 기록을 다룬다는 점에서 역사성을 가지며, 이러한 역사성은 마을 아카이브 구축 계획 전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작용한다. 아카이브에 수집된 자료는 과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1차적 자료로서, 과거의 소소한 역사적 사건들이 그 안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의해 직접 서술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 마을 아카이브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공간적 역사를 기록하고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정체성 발전과 시민의식을 고양시킨다. 둘째 마을 아카이브의 자료는 생활사뿐만 아니라 건축, 미술, 음악 등의 관련 예술 역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같은 실무적 차원에서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재개발로 인해 마을의 원형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이 부재한 한국의 도시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접근성

접근성은 마을 아카이브의 참여적인 측면에 대한 것으로 아카이브의 구축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마을 아카이브는 계획 과정 전반에 걸쳐 해당 마을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성은 자료의 수집 단계뿐만 아니라 아카이브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데, 향후 구축하려는 마을 아카이브의 최종적 형태에 적합한 접근성 증대의 방안이 아키비스트와 마을 구성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MLA의 2003년 보고서는 과거에는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자료들이 디지털화를 통해 오늘날 접근성이 크게 증가했음을 아카이브 관련 통계에 바탕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과거 분산되어 존재했던 자료들의 수집에 대한 지속적 노력과 이를 디지털화한 것, 그리고 디지털아카이브의 어려운 메커니즘을 굳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의 개발이 있다. 마을 구성원 스스로가 아키비스트인 동시에 이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아카이브는 아키비스트와 마을 구성원, 이용자 사이의 엄격한 구분이 없다. 따라서 아카이브를 이용하고 동시에 그 아카이브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최대한 직관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 아카이브의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3) 공유성

공유성은 마을 아카이브의 활용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으며, 마을 아카이브에 수집된 자료를 마을 안팎의 역사적, 문화적 교육과 연계시키거나 실질적인 마을공동체 계획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을과 관계되어 있는 공간적 자료들의 영구적인 보존은 일반인, 연구자, 학생, 교육자, 계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마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외부의 설계자가 마을의 물리적 계획을 수행할 때 마을 아카이브는 마을을 이해하고 이를 향후 계획에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마을 아카이브는 역사, 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아카이브 관련 분야의 인력을 훈련하고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3.3. 마을 아카이브의 계획 과정

1) 전체 구상

마을 아카이브의 구축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마을 아카이브의 전체적인 목표와 마을 아카이브가 포함하려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마을 아카이브의 구축은 아카이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향후 수집되는 자료의 성격이나 자료의 체계적 분류 기준이 달라진다. 또한 아카이브 작업은 현실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마을 아카이브가 포함하고자 하는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마을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경로, 기술적인 지원 여부, 마을 아카이브의 최종 형태 등 아카이브의 실제적인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이 논의된다.

2) 자료의 수집

마을 아카이브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아카이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의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간 정보를 담아야 하는 마을 아카이브의 특성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마을 아카이브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체계적인 자료의 분류와 향후 활용을 위해서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된 조사표를 마련하여 수집 자료의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을 아카이브에서 수집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1) 정보의 성격에 따라 공간 기록물(마을의 지리적 정보)과 비공간 기록물(공간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 2) 매체의 성격에 따라 사진, 지도, 물체, 구술사, 동영상, 책, 그림엽서, 공문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2는 더블링크어 양식의 메타데이터²⁾와 앞서 언급된 기존 아카이브 사례들에 쓰인 요소들을 비교한 것이다. 더블링크어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표준 양식은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단순성, 상호운용성, 확장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김주관, 2006), 표2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 아카이브의 자료가 갖는 특성에 따라 데이터 요소는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2) 메타데이터(metadata)는 해당 데이터의 성격을 기술하는 데이터 요소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형식으로는 크게 멀티미디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더블링크어(Dublin Core) 양식과 미술품을 대상으로 한 CDWA(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가 있다(김주관, 2006).

<표2> 더블링크어 메타데이터 요소와 유사 아카이브 데이터 요소 비교 ((김주관, 2006; 이남희, 2008)의 내용을 보완, 첨가하여 재작성)

구분	더블링크어 메타데이터	내용	Community Archives Wales	Moving Here	조계와 아시아	20세기민중 생활사연구단
내용	Title	제작자가 부여한 제목	Title	Title	표제	Title
	Subject	자료의 주제나 그 내용을 표현한 명사나 구	Category	Theme	-	주제
	Description	자료의 내용에 대한 테스트 기술, 연결정보	Description	Description	건축면적/건상면적/건폐율/용적률/건물동수/호수	주요내용
	Source	해당 자료의 출처가 된 원정보 자료	Owner	-	출전	자료출처
	Language	자료의 내용을 기술한 언어	-	-	-	기록언어
	Relation	다른 자료와의 관계	Related images /Tags	-	-	연관자료
	Coverage	자료의 지리적, 시간적 특성	Location	Community	소재지	자료배경
지적 재산	Creator	자료의 생성에 관계된 인물, 단체	-	Partner	설계자/건설자	제작자
	Publisher	자료의 제작 기관	-	-	-	제작기관
	Contributor	creator 외 자료의 내용에 기여한 인물, 단체	-	-	-	제보자
	Right	저작권이나 정보이용관리에 관한 공지	Copyright/Licence	Access	-	저작권
구현	Date	자료가 현재의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된 날짜	Date	Date(s)	건설 연대	제작연월일
	Type	자료의 범주와 장르	Medium	-	-	기록형태
	Format	자료의 표현 형식	-	Format	-	자료형식
	Identifier	자료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문자열, 숫자	CNA	Reference	-	자료번호

특히 1930년대 상하이의 일본 조계지 주택 특성과 관련된 ‘조계와 아시아³⁾’의 경우 다른 아카이브 사례에 비해 메타데이터 요소들이 건축물의 특징을 기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공간 기록물과 그에 대한 해석에 많은 비중을 두는 마을 아카이브는 이러한 국제적 표준 양식을 따르되 그 특성을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구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수집된 자료의 체계화

마을 아카이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가 포함하고 있는 자료들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마을 아카이브 자료의 체계화를 위해서 가장 크게 논의되는 부분은 자료들을 분류하는 기준과 위계에 관한 것이다. 아카이브 자료의 체계화에 대해서 이남희(2008)는 마을 아카이브 간 효율적인 자료의 공유와 호환을 위해 분류 색인(category)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마을 아카이브가 다루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실제로 마을마다 다양하고 또한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 이루려는 목표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분류 색인의 적용은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분류 색인과 같은 자료의 체계화 방법은 자료의 호환과 공유를 고려하되 마을 아카이브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경되는 것이 적절하다.

4) 마을 아카이브 구현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실제적으로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단계로서, 마을 아카이브가 무슨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요구된다. 유사한 내용의 자료와 분류 체계를 가지고도 마을 아카이브는 우선순위에 두는 목표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ommunity Archives Wales⁴⁾는 분류별, 매체별, 그룹별, 주제별로 잘 정리된 색인에 따라 웨일즈 내 다양한 커뮤니티의 역사적 기록을 찾기 쉽게 볼 수 있다는 특성이 있는 반면, Moving Here⁵⁾는 이러한 색인의 체계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용자 스스로 해당 기록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직관적인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러한 Moving Here의 형태적 특성은 국내 민속아카이브⁶⁾ 사례와 매우 대조적이다. 민속아카이브에서는 주

3) <http://www.himoji.jp/database/db05/>

4) Community Archives Wales (<http://www.ourwales.org.uk>)

5) Moving Here (<http://www.movinghere.org.uk>)

로 문화유산의 정보 제공과 기증이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제한적인 아카이브 이용방법은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와 자료의 활용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마을 아카이브의 구현은 마을 아카이브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그 목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고민이 자료의 수집과 보존뿐만 아니라 전달과 공유의 측면에서 또한 효과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5) 활용 및 지속적 보완

마을 아카이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마을 아카이브는 인력, 시간, 재정, 기술의 측면에서 대부분 한정적인 자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아카이브가 포함하고 있는 자료는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마을 아카이브는 마을공동체의 공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이 되는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이 증가하며 그에 대한 해석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영국 사례로 조사된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경우 대부분 다양한 장치를 통해 이용자의 피드백을 아카이브 내용의 보완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아키비스트와 마을 구성원, 이용자 간의 명확한 경계가 사라지는 대안적인 아카이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

4.1. 대상지 개요



<그림1>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의 범위 (사진출처: 구글어스)

인천 차이나타운이 위치해 있는 인천 중구 북성동과 선린동 일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을 아카이브 구축의 시범 대상지로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 지역은 1884년 청국 조계지로 지정된 이후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중국인 밀집지역으로서 역사적, 문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독특한 역사문화경관을 이루고 있다. 둘째, 따라서 이 지역은 인천 화교뿐만 아니라 한국 화교의 정신적인 고향으로 여겨져 왔으나 상대적으로 커뮤니티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공의 관심은 미미하다. 셋째, 이 지역은 2001년 인천중구청에 의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마을 곳곳에서는 급격한 공간적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리적 계획은 상당 부분 기록의 부족으로 인해 그 문화적 왜곡이 심각하다.

인천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 개항과 함께 1884년 오늘날의 선린동 일대가 청국 조계지로 지정되는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차이나타운이라는 용어가 도입된 건 이 일대가 관광지로 인식되기 시작한 90년대의 비교적 최근으로서 그 이전까지 이 일대는 '서가', '중국인 거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고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국인 인구가 많은 평범한 동네였다고 한다.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경관은 인천화교중산학교를 비롯한 화교 사회의 건축적 유산과 아직까지 그 원형이 일부 남아 있는 1900년대 초반 중국 건축물, 그리고 당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공공 건축물들의 흔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2> 1884년 인천 청국조계지도 (출처: 손정목)

4.2.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 계획

1) 전체 구상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는 마을 단위 문화유산의 기록화를 통해 이 지역의 고유한 공간적 역사를 보존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러한 마을 아카이브 구축 과정을 통해 그동안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던 마을공동체의 공간적 역사를 발굴할 수 있다. 둘째, 향후 구축된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 마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마을의 물리적 환경 계획에 구체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충분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오히려 마을의 경관을 훼손하는 물리적 계획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의 계획에 있어 공간적 범위는 인천 중구 북성동, 선린동 일대를 포함하는데 이는 1884년 처음 조계지로 지정되었을 무렵에 작성된 지도

6) 민속아카이브 <http://archive.nfm.go.kr/>



제목	1980년대 선린동 일대
분류	가로
설명	2000년대 재개발 사업으로 현재의 경관으로 바뀌기 이전 선린동의 모습
출처	손장원 (개인 소장)
언어	-
연관자료	PA0002
위치	차이나타운1길
제작자	손장원
발행처	-
기여자	-
저작권	손장원
제작일	1983년
기록형태	사진
자료형식	JPG
고유식별자	PA0001



<그림3> 더블린코어 양식을 적용시킨 자료조사표의 예

부터 90년대 초반 이 일대에 재개발 계획이 조성되기 시작한 후 제작된 여러 공문서에 나타난 지도 등을 참조하였다. 한편 시간적 범위는 이 지역이 청국 조계지로 지정된 1884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범위는 근대 이후 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통해 전개된 인천 화교사회의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고 공유하려는 본 마을 아카이브의 전체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다. 본 마을 아카이브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장이 용이하고 또한 높은 접근성과 공유성의 측면이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최종적인 아카이브의 형태로 설정한다.

2) 자료의 수집

이와 관련된 실측 조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현지조사와 문헌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활용된 조사표(그림3)와 조사된 문화유산들의 목록의 예는 다음과 같다(표 3). 본 마을 아카이브는 더블린코어 양식을 활용하여 메타데이터 요소를 만들었는데, 이때 염두에 둘 것은 조사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합의된 양식을 따라 고유식별자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고유식별자는 더블린코어 양식의 메타데이터에서 'Identifier'에 해당하는 요소로서, 해당 자료를 검색하거나 식별해내기 위해 문자와 숫자로 표시된 일종의 약속 체계이다. 본 연구에서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의 고유식별자는 크게 매체별로 구분된 두 자리의 문자열과 자료의 습득 및 자료에 관한 정보의 확보 순서에 따라 부여된 네 자리의 숫자열을 합친 형태로 정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그림 3에서와 같이 특정 자료가 갖는 공간적 참조점을 마을 지도에 표시하는 부분인데, 이는 마을의 공간 기록물로서의 의미를 갖는 마을 아카이브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표3>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 조사 자료 목록과 고유식별자 부여의 예

매체별 구분		자료	고유 식별자
지도(M)	고지도(MA)	인천청국조계지도	MA0001
	관광지도(MB)	인천시중구관광안내지도	MB0001
관광책자(TA)		재스민 향기가 물씬 풍기는 차이나타운	TA0001
사진(PA)		재개발 이전 1980년대 마을 경관	PA0001
연구자료(R)	책(RB)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RB0001
	논문(RT)	개항 이후 인천 청국조계지의 주택 및 상업건축에 관한 연구	RT0001
	보고서(RR)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계획	RR0001
언론보도(N)	신문(NS)	도시를 걷다, 어제를 만나다	NS0001
	전시회 자료(EA)	중국으로 가는 21세기 뉴 실크로드	EA0001
문학작품(L)	소설(LN)	중국인 거리 (오정희)	LN0001
인터뷰(I)	문서(ID)	인천화교 3세대의 마을 회상	ID0001

3) 수집된 자료의 체계화

공간 기록물의 축적과 공유를 위한 마을 아카이브는 향후 효과적인 자료 관리와 검색, 활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분류 체계가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생활사 아카이브로서의 의미가 강한 Community Archives Wales의 경우 총 7개의 상위분류(스포츠-레저, 물리적 환경, 산업/상업, 정치, 공동체/사회, 문화/예술, 종교/신앙)와 총 70개의 하위분류로 자료들이 구분되어 있다. 본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에서는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크게 건축물(주택, 학교, 종교건축, 상업건물 등), 가로(패루길, 차이나타운1길, 차이나타운2길, 차이나타운3길, 뱀뎡이회길, 삼국지벽화길 등), 공터, 마을 일반 등으로 분류하였고, 특정 자료가 전체 마을에서 갖는 공간적 참조점을 별도의 마을 지도에 함께 표시하여 자료가 갖는 공간 정보를 일별하기 쉽게 하였다.

4) 마을 아카이브 구현

다양한 공간 정보가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마을의 특성상 마을 아카이브의 특정 자료들은 상호 관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하나의 건축물과 관련된 주민들의 기억은 다양하며 이들 모두는 저마다 그 나름의 공간적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는 이러한 마을 아카이브 자료들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요소 중 연관자료(relation)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그 예로서 지도/사진과 같은 하나의 공간 기록물에 관련된 인터뷰, 문학작품, 연구자료 등 비공간 기록물뿐 아니라 의미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다른 공간 기록물까지 함께 일괄할 수 있게 하는 구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인천 차이나타운과 같이 역사가 오래 된 마을에서는 건축물/장소에 그 역사에 상응하는 많은 기록물들이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는 하나의 건축물/장소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록물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20세기 초 요식업과 숙박업의 겸업으로 문을 연 '공화춘(당시명 산동회관)'은 오랜 세월 이 마을에서 음식점뿐만 아니라 마을의 중요한 행사를 주관한 공공장소로서의 역사성을 지닌다. 이 건축물의 역사를 증명하는 여러 공간 기록물(사진, 지도 등)과 비공간 기록물(인터뷰, 문학작품, 연구자료 등)들은 효율적인 마을 아카이브 구현을 통해 풍성한 역사적 내용과 이야기를 담는 중요한 공간적 자료로서 재구성될 것이다.

5) 활용 및 지속적 보완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공간적 역사를 마을 주민들의 시각에서 서술되고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 축적된 여러 공간적 자료들은 인천 개항장 근대건축물 보전 계획과 같은 실무에서도 중요한 참고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들의 꾸준한 전시와 출판을 통해 한국의 근대 도시에 관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향후 다른 마을들의 아카이브 구축에도 좋은 시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과 해석, 수정, 보완을 통해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는 마을 아카이브의 핵심 목표인 역사성, 접근성, 공유성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 마을 단위 문화유산의 기록화가 갖는 도시건축적 의의를 밝히고 그 구체적인 계획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인천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인천 중구 선린동 일대는 그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간 기록의 부재로 마을의 역사적 경관이 훼손되어 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범 마을 아카이브 구축 사례로서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카이브 관련 연구와 생활사 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 마을 아카이브와 유사한 아카이브가 구축된 선행 사례들을 통해 마을 아카이브의 계획 개념을 크게 역사성, 접근성, 공유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가 실제로 계획되는 과정은 전체 구상, 자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 체계화, 마을 아카이브 구현, 활용 및 지속적 보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마을 아카이브가 실제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재정 및 기술 지원에 대한 문제와 함께 원자료들의 공개 여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현재 마을 아카이브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기록물관리법, 건축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이 있으나 실제적인 아카이브 구축은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을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재정, 기술의 문제는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서구의 관점에서 마을 아카이브는 그들의 오랜 이민 역사를 토대로 주로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사회통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공동체들을 포용하는 데 있어 역사적 기록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지역 간 이동과 소득의 불균형으로 특정 지역의 소외 현상이 심각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마을 아카이브는 중요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빈번한 재개발로 인해 도시 혹은 마을의 역사적 흔적이 점차 사라져가는 한국 도시적 상황에 있어 마을 아카이브는 그 자체로 공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며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서술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 아카이브는 지역성을 발굴하고 수집, 기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며 문화역사마을가꾸기와 같은 마을공동체 설계에 보다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 기록의 수집과 보존, 공유를 통해 마을 아카이브는 도시건축적 맥락에서 오늘날의 도시 개발 방식에 대한 대안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동진, 최동식, "역사지구의 개념 확대와 정립을 위한 기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Vol.37, No.4, 2002. pp.41-58.
2. 곽건홍,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기록학연구』, Vol.22, 2009. pp.3-35.
3. 김기호, "도시 역사환경 보존-면적(面的) 보존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Vol.13, No.4, 2004. pp.156-162.
4. 김주관,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지방문화』, Vol.8, No.1, 2005. pp.217-249.
5. 김주관, "문화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지방문화』, Vol.8, No.2, 2006. pp.447-483.
6. 박소현, "도시설계 경향과 역사적 도시건축의 보전", 『건축』, Vol.49, No.7, 2005. pp.101-105.
7. 박소현, 최이명, 서한림, "역사주거지구 소규모 생활권단위 추정방법에 관한 기초연구: 북촌 도시형태요소와 근린편의시설의 분포 상황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 Vol.22, No.9, 2006. pp.223-231.
8. 박순철,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과 활동", 『영남학』, Vol.14, 2008. pp.35-61.
9. 이남희,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문서자료의 조직", 『영남학』, Vol.14, 2005. pp.63-100.
10. 이상현, "독일 민속학의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배경과 방법", 『한국민속학』, Vol.48, 2008. pp.39-69.
11. 이영남, "마을아르페 시론-마을 차원이-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Vol.8, 2008. pp.221-254.
12. 임은영, 임승빈, 박소현, "역사적 환경을 고려한 정비계획의 사이트분석 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종로구 누상동, 누하동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도시설계학회, 2005. pp.85-94.
13. 전봉희, 우동선, 이우종, "한국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 Vol.20, No.3, 2004. pp.94-103.
14. 정선영, "생활사 아카이브의 건립 가능성과 역할", 『영남학』, Vol.14, 2008. pp.163-199.
15. 정석, "역사문화환경의 면적보전제도 도입방안", 『도시설계』, Vol.10, No.4, 2009. pp.233-248.
16. 조준배, 엄운진, 『건축가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AURI-기본-2009-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pp.69-135.
17. 유광흠 외,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AURI-기본-2008-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pp.75-105.
18. 최재희,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8, No.2, 2008. pp.61-74.
19. 함한희, "생활사 연구와 아카이브의 활용", 『영남학』, Vol.14, 2008. pp.7-38.
20. Horton, Rovert, "Cultivating Our Garden: Archives, Community and Documentation", 『Archival Issues』, Vol.26, No.1, 2001. pp.27-40.
21. Cox, Richard, 『Documenting Localities: A Practical Model for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Lanham, Md.:Scarecrow Press, 2001. pp.35-147.
22. Hayden, Dolores, "Placemaking, Preservation and Urban History",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Vol.41, No.3, 1988. pp.45-51.